



지난주 신청새가족[2024-53~55]



홍순애 권사



전지훈 집사



곽선영 집사

임마누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예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 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몬 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 목사
영파교회 고병선 목사
익산벧엘교회 미준철 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사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06378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3길 7
T 02.3411.1918

기독교 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김영광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1부 고동원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대표기도

사도행전 20:17-38(새번역)

사회자

찬양대

주 없이 살수없네

임마누엘찬양대

설교

사명을 위해 울어보았는가

김영광목사

*봉헌과결단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10/27 1부 권영희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11/3 1부 박양수 장로
2부 김현식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갈라디아서

김영광 목사 유한나 목사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교회, 나의 기도원

화~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총만(나는 예수로 총만하네)

말씀_사도행전 20:13-38



드로아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바울을 제외한 농역자들은 배를 타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배를 통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바울은 걸어서 앗소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누가가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앗소로(마라네)기오(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 아주 빽빽한 일정으로 선교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서두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예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만남니다. 예베소는 바울이 3년동안 머무르며 갖은 고생을 했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는 믿음으로 세워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큰 환난(구금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유언처럼,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을 청하여 마지막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행20:18-3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한 걸음 성큼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환난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행20:24)”

가정예배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바울은 또한 예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맡겨진 양떼(성도들)을 잘 살피고 돌보되, 바울 자신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며 본받아 섬겨주길 부탁한 것입니다. (32절) 이후 이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며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예베소의 장로들과 바울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매 순간 예수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으니, 당신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세요’라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삶이 오직 예수님을 본받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마지막 순간, 나는 어떤 것으로 담대할 수 있을까요?
- 2) 내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닮은 모습이 있나요?

온라인 현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현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현금-김바울감
주일현금-김바울주 / 선교현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현금-김바울건